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홍명보號, 가나전서 '마지막 시험'

내일 평가전…본선 대비 '베스트 11' 가동

박주영·구자철 투톱…필승의 전술 테스트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의 꿈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결전의 땅' 브라질 입성을 앞두고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의 성과를 점검받는 마지막 평가전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오전 8시 미국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한판 대결을 펼친다.

지난달 31일부터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치러온 홍명보호는 공수 조직력과 세트피스 완성에 공을 들였다. 특히 선수들의 이틀 연속 비공개 훈련을 통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동할 '필살기'를 가다듬었다.

이번 가나와 평가전은 홍 감독이 야심 차게 준비한 '브라질 승리 전술'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점검받는 자리다. 대표팀은 이번 가나 평가전이 끝나면 11일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 사용할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포스 두 이구아수로 이동한다.

태극전사가 상대할 가나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7위로 한국(57위)보다 20계단이나 높다.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 포르투갈, 미국과 함께 '죽음의 G조'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가나는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만날 수 있는 16강 상대국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 가나와의 역대 전적에서 3승2패로 앞서고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1승2패로 밀리는 형국이다.

가나에는 월드컵 3회 연속 출전에 빛나는 아사모아 기안(알 아인)과 설리 문타리(AC밀란)를 필두로 마이클 에시엔(AC밀란), 케빈-프린스 보아텡(샬케) 등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하다.

주장인 기안은 A매치 77경기에서 38골을 터트린 '베테랑 골잡이', 에시엔(A매치 57경기 9골)은 '멀티플레이어'의 대명사로 중원을 지키는 핵심 자원이다. 중앙 미드필더 문타리는 A매치 80경기에 출전한 베테랑이다.

'강호' 가나를 상대하는 홍명보호는 본선 무대에 대비한 베스트 11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영(아스널)과 구자철(마인츠)이 나란히 원톱 스트라이커와 섀도 스트라이커로 나서 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좌우 날개는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맡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6월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골 맛을 봤던 지동원(도르트문트)은 손흥민과 왼쪽 날개 자리를 놓고 선발 경쟁에 나선다.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스완지시티)-한국영(가시와 레이솔)이 맡는 가운데 포백(4-back)은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김영권(광저우 헝다)-곽태휘(알 힐랄)-이용(울산)이 나설 전망이다. 중앙 수비수 홍정호는 발등 부상에서 벗어났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벤치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는 2011년 가나전에서 페널티킥 선방을 포함해 눈부신 방어력을 보인 정성룡(수원)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가나 이기고 브라질로!" 브라질 입성에 앞서 오는 10일(한국시간) 가나와 평가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8일 오전 전지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에서 전술훈련을 한 뒤 러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 감독

"한국, 16강 어렵다"

호남대, 순위 예측…브라질 우승, 한국 24위

한국 축구 대표팀의 브라질월드컵 16강 진출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호남대 축구학과 경기분석팀(지도교수 홍성진)은 8일 국가별 순위 예측 모델을 적용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표팀이 속한 H조에서는 벨기에와 러시아가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아쉽지만 16강 진출이 좌절될 것으로 분석됐다.

A조에서는 브라질·멕시코, B조 스페인·네덜란드, C조 콜롬비아·일본, D조 우루과이·이탈리아, E조 프랑스·스위스, F조 아르헨티나·보스니아, G조 독일·포르투갈이 16강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월드컵의 국가별 순위 예측에서는 브라질의 우승을 꼽았고, 이어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가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15위, 한국은 24위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분석은 월드컵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변수를 투입, 통계기법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경기 내적 요인은 역대 월드컵 성적·FIFA 랭킹·선수 수준·대륙간컵 성적·월드컵 지역예선 성적 등이 포함됐고, 경기 외적 요인은 비행거리·시차·기온·홈 어드밴티지 등이 사용됐다.

역대 월드컵 성적의 경우 대회가중치와 성적가중치를 주어 수치화했다.

호남대 축구학과 경기분석팀을 이끌고 있는 홍성진 교수는 "한국 순위가 낮게 평가된 원인은 FIFA 랭킹, 선수들의 리그 분포, 개최지와의 거리 및 시차 등의 요인에서 저평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축구경기에서 승패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 자료는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론에 입각해 도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대 축구학과 경기분석팀은 이번 브라질월드컵 동안 각국의 최근 경기를 정밀 분석해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의 주요 선수와 팀에 대한 분석결과를 경기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 대표팀 경기(18, 23, 27일)가 끝난 직후에도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개설된 호남대 축구학과는 남아공월드컵 때도 자체 개발한 경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와 경기를 펼친 그리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의 전력 분석과 대응 자료를 제공해 주목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가 전술의 Key"

기성용, 볼 배급·세트피스 전담 훈련

홍명보호 전술 운용의 핵심인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책임감을 강조하고 나섰다.

8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 가나와의 평가전(10일 오전 8시 선라이프 스타디움)을 이틀 앞두고 치러진 전술 훈련에서 태극전사들은 뇌우주의보가 발령돼 훈련이 중단되는 험한 환경에서도 '베스트 11' 자리를 향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전술 훈련은 수비에서 시작해 중원을 거쳐 좌우 측면으로 이어진 뒤 크로스를 통해 득점까지 연결되는 공격 패턴 완성에 집중됐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기성용이 맡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집중됐다. 기성용의 역할은 볼을 받은 뒤 상대 공격진의 압박 정도에 따라 공격진영으로 볼을 배급할지 한 박자 늦춰 다시 수비수에게 돌려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의 패스가 공수의 시발점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성용의 패스 실수는 자칫 역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볼을 잘못 지켜서 상대 공격수에 빼앗기기라도 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기성용의 또 다른 역할은 세트피스 전문 키커다. 강하고 정확한 킥을 바탕으로 코너킥은 물론 프리킥까지 전담해서 차올린다. 말 그대로 홍명보호 전술의 '핵심 키'가 바로 기성용이다.

이에 대해 기성용은 "경기가 크게 밀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앞서갈 수도 있다. 동료가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상황에 맞춰 경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한 킥을 자랑하는 만큼 득점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2선 공격에 가담해 슈팅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라며 "슈팅 감각도 상당히 올라왔다.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웃음을 지었다. /연합뉴스